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사는 성도들이여”

주님의교회 창립25주년 전교인 사경회

주님의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사경회가 7월1일부터 3일까지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사는 성도들이여”라는 주제로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서 열렸다.

장마철에 접어들어 폭우와 돌풍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성도가 3일 동안 예배당 1층을 거의 가득 채운 가운데, 송실대 기독교학과 김희권 목사의 열띤 설교가 진행되었다.

7월 1일 첫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 앞에 항복하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빛과 어둠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둠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빛나게 됨을 역설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역설적 방법으로 우리를 추적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함을 설명했다.

7월 2일 둘째 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 같은 성도들”로, 이 세상이 서로 나눌 수 없는 연대적 삶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인으로 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설파했다.



7월1일부터 3일간, 창립 25주년 기념 전교인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7월 3일 셋째 날의 주제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재건 세대의 성도들”로, 예수님의 언어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언어는 심판의 언어와 위로와 희망의 언어가 함께 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헌신이 예언서의 본질임을 예언서의 다양한 말씀과 함께, 마르쿠스와 영국 감리교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 중보자의 삶으로 거듭나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 관련기사 2면

창립25주년 기념음악회

창립25주년 기념음악회가 시온찬양대 주관으로 6월 26일 저녁 7시 30분,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대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 앞에서 연주되었다.

<천지창조>는 구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실낙원>을 바탕으로 영국의 시인 리들레이가 쓴 대본에 하이든이 곡을 붙인 곳이다. 천지창조의 과정이 3부로 나뉘어서 1시간 40분에 걸쳐 연주되는 대작인데, 이날의 연주에서는 그중 24곡을 선정해서 연주했다. 합창단은 총 1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

휘는 김인수가 맡았고, 천사 가브리엘 역은 소프라노 이해정, 천사 우리엘 역은 테너 권화평, 천사 라파엘과 아담 역은 바리톤 이두영이 맡았다.

이 은혜로운 공연을 위해 3개월 전에 곡을 선정했으며, 10주전부터 연습에 돌입했다. 매주 토요일 전원이 모여 연습을 했고, 주일에는 파트별로 연습하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주님이 주님의교회를 허락하시고 25년간 교회의 머리되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고 찬양대 총무를 맡고 있는 김광일 집사는 말했다.

함즐함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중보자의 삶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던 사경회는, 자칫하면 창립 정신의 제도와 형식에 매몰되어 잊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과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3일에 걸친 김희권 목사의 설교 내용을 요약 게재합니다.

함줄함줄

첫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 앞에 항복하는 영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시편 139:1)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 것을 아시므로 근원적인 동정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요, 또한 인간의 동선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보듯, 하나님은 인간의 습관과 형질을 아주 잘 아십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때, 즉 신앙의 직립 보행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욕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빛보다 어둠이 먼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원시의 어둠을 떠올려봅시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 즉 양지바른 언덕만 바라보는 자는 지나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냉담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욕과 같은 고난은 필수입니다.

주님은 빛과 어둠의 역설적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추는 빛이 때로 어둠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둠이 하나님에게는 빛이 되는 역설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환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명적인 어둠에서야 빛의 창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믿음, 극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 집요하고 신실하게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사는 성도들이여” 라는 주세로 3일간 주님의교회 사경회를 이끈 송실대 기독교학과 김희권 목사.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같은 성도들

“여호와와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122)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증명해야 하는 부담어린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세포적인 연합상태이며,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이 불행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각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인권’과 같이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각성한 계몽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각축하는 근대 인본주의자들 속에서 망명정부 같은 하나님나라가 통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수증 천사 급 성도가 필요합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믿음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대한 본질적, 일상적인 순종,

마치 에스겔 같은 전향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의 질서를 이루는 각 층위에 의인들이 끼어들어, 악의 질서에 동조하지 않고 보이콧하여, 악의 오작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기쁨에 동참하도록 공동통치자로서 빈 여지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동맹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대한 명품 인간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입에서가 아니라, 삶이 ‘아멘’이 되도록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빛의 속도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순간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영적 감흥이 오는 순간 그 영적 체계 안에 로그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재건세대의 성도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

는 자라 하리라”(이사야 58:12)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신약 속에는 까칠하고 엄격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구약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언어가 예언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예언서 속의 문맥에서 그 말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중심 해악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궁핍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지탱시켜주는 것. 즉, 심판의 언어와 위로와 희망의 언어가 교직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예언서는 민중과 밀착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컨대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선된 신앙생활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는 ‘사회적 자비의 실천’입니다. 즉 중보자적 사랑의 급진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것은 그의 망명지 영국 런던에서였습니다. 영국 감리교에는 마르크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놀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국은 공산화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반면, 교회가 귀족들과 함께 자족하면서 민중을 돌아보지 않았던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공산화되었습니다.

흔히 중산층이 많아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산층이 아니라 중보자가 늘어야 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사회적 자비심이 작동하여야 모두 행복하고 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바로 중보자의 삶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8

7세기 이슬람의 발흥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테러 이후, 서방세계와 이슬람국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계속되고 있는 끊임없는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 또한 서방세계와 이슬람국가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 이 끊임없는 갈등의 배후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갈등의 또 다른 이면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대립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동서 냉전시대 이후에 국제 갈등은 이념적인 대결보다 종교와 문화권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헌팅턴 교수의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 갈등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알라(Allah)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마호메트(Mahomet, 570-632년 추정)의 이슬람 군대가 638년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사원을 건축함으로써 기독교와 아랍 무슬림은 철천지 원수의 관계를 맺고 말았다. 이슬람의 종교적 역사는 투철한 유일신 사

상을 가지고 있던 메카(Mecca)의 지도자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610년) 유일한 절대신 알라(Allah)의 선지자가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마호메트가 처음 계시를 받는 장면은 구약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선지자의 부름받는 장면과 흡사하다. 마호메트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두려워하며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응답을 주저한다. 그러나 천사가 가브리엘의 직접적인 계시를 기록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Koran)이 완성되자(610-632년) 마호메트는 메카를 향해 새로운 신앙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마호메트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창궐하던 다신론(多神論)에 대한 강력한 부정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런 유일신 사상의 근원을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는 장면. 이슬람 미술에서는 마호메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금기이므로 하얗게 나타남.

에서 찾는다(코란 3:68).

마호메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고대 근동(近東)의 유일신 사상을 신봉하였던 진정한 무슬림의 시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유일신 사상은 모세, 선지자, 예수 등에 의해 이스

라엘과 고대 근동지방의 후대로 전해졌지만, 마호메트의 때에 이르러서는 다신교 신앙이 창궐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미신적이며 타락한 다신교 신앙의 종교적 부

패가 극에 달하자, 알라는 유일신 종교의 최후의 선지자로 마호메트를 선택하였다.

마호메트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에 대한 계시를 받을 즈음, 아라비아 반도의 대도시 메카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당시 메카의 각 부족 고유의 토속신앙을

숭배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360개의 신상을 모아둔 신전(Ka'ba)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다신교적인 메카의 종교적 분위기가 상업화로 치달으며 살벌해지는 사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마호메트는 이슬람(Islam)이라는 절대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원래 '이슬람'은 '항복한다' 혹은 '복종하다'는 뜻이다. 미신적이며 타락한 다신교 신앙을 버리고 절대 유일신인 알라에게 항복한다는 뜻인 셈이다.

그러나 마호메트의 새로운 유일신 신앙은 메카의 토착 유지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마호메트와 그를 따르는 200명의 초기 이슬람교도들은 마호메트의 종교적 지도력에 호응적이었던 도시 메디나로 옮겨간다(622년). 이때의 집단 이동을 '하지라(Hijira)'라고 부르는데, 이슬람의 역사는 이 '하지라'가 있었던 622년이 원년(元年)이다. 메디나에서 종교적 지도력과 무력과 함께 키워온 마호메트는 특유의 정치적 수완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630년 마침내 메카를 점령하고 명실상부한 아라비아의 지도자로 부상함과 동시에, 이슬람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게 되었다.

이강찬 목사

성경 - 한자로 풀어보기 46

出埃及記 출애굽기

(The Book of Exodus)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나라(출20:2)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19:4)

埃及(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이집트(Egypt)를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假借文字(가차문자)인데 “굽”이라는 한자가 없으므로 비슷한 음의 “굽”을 사용하였다.

① 아프리카 북동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대국이며 고대문명의 발상지중 하나이다.

② 이스라엘 역사상 큰 도움이 됐는가하면 위협적인 존재여서 양국 사이에 수많은 浮沈(부침)이 있어 왔다.

③ 성경에서는 偶像(우상)의 나라 혹은 世上(세상)으로 상징화

하였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 애굽땅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내어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야기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出(날 출): “풀썩”을 뜻하는 𠂔(썩 날 철)을 상하로 겹쳐 <땅을 뚫고 풀썩이 거둬 돌아난다>라는 문

자가 만들어졌다.

★埃(먼지 애. 티끌 애): 土(흙 토)와 “많고 크다”는 의미의 𠂔(사사로울 사)와 矢(화살 시)의 합자로 <흙 위에 꽂히는 많은 화살로 인하여 피어나는 것이 먼지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及(미칠 굽): 人(사람 인)의 변형체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손”을 뜻하는 又(또 우)를 합쳐 <앞서가는 사람을 손으로 잡기위하여 따라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줄함울

창립 25주년 기념 설문 조사 / 주님의교회, 내일을 생각한다

‘비움’은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큰 모범

함줄함줄에서는 지난 320호(6월 23일자)에 ‘비움’이라는 열쇠말로 창립 25주년을 기렸습니다. 과연 ‘비움’은 무엇일까요? 함줄함줄에서는 ‘비움’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비움’을 실천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개념에 따라, 앞으로 여덟 번에 걸쳐 찾아보려 합니다.

“

‘비움’을 뜻하는 ‘케노시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에 근거를 두고 있다.

리스어 성경에 나타나는 ‘에케노센(κένωσεν)’을 어원으로 하는데, 이는 ‘자기를 비우다’나 ‘자신을 아무런 명성 없이 만들다’라는 뜻이다. 즉, ‘케노시스’란 용어는 예수님이 지고한 자신의 위상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낮춘 가장 완벽한 겸허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케노시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서, 케노시스란 무엇인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아들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또한 그 아들은 죄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케노시스적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비움’을 통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로움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고, 인간 또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비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됨을 택하여 태어나고, 자라는 일생을 거쳐서 ‘자기 비움’의 과정을 체험하셨다는 점이다. 스스로 주인이 아닌 종의 위치로 내려와서, 고난을 겪고 죽음의 이르는 모든 과정을 택했다는 것은 이미 갖고 있었던 모든 우월한 지위를 ‘내려 놓음’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시대에 인간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함께 함을 의미한다. 스스로 부자와 권력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요, 죄인과 병자

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하셨으니, 타자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극단적 결과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바로 타자를 위한 ‘비움’의 완벽한 형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부활에서의 케노시스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여주셨다. 인간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비움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부활이란 예수님의 일생과 순종과 사랑과 행위와 교훈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케노시스’ 곧 ‘비움’은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

리에게 ‘비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터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케노시스의 삶

지난 창립 25주년 기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인의 대부분에게 창립 정신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움’의 정신은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는 (61.5%) 반성적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에게 큰 부담이 없는 제도의 측면에는 동의하며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비움’으로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뜻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 안팎의 생활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주님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하려는 모습이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이겠다. 우리에게 ‘비움’은 과연 무엇일까?

‘비움’은 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는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복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빈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 빈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비움’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내게 없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비움’의 경지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를 서로 자랑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직 ‘비움’이 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교회의 사역 자리에서, 또 겨자씨 모임에서 가족의 사회적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터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상처받고 낙심했을 실패한 자의 옆에 앉아 떡과 잔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움’을 뜻하는 말 ‘케노시스’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케노시스(κενώσεις)’라는 용어가 쓰여졌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 교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에 근거를 두고 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이 말씀의 그

2013년 임직식



6월 23일 거행된 2013년 임직식에서 장로 4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18명이 안수를 받았다.

2013년 항존직 임직식이 6월 23일 3부 예배 때에 진행되었다.

장로 4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18명은 2012년 항존직 선거에서 피택되어 피택자 교육을 마쳤으

며, 이날 안수를 받음으로써 항존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앞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 현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기를 주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도 가졌다. **함줄함울**

창립 25주년 기념 사진전



창립 25주년 기념 사진전이 6월 23일에서 30일까지 주일마다 대예배당 앞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3일에서 30일까지, 주님의교회 로비와 앞뜰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렸다. 주님의교회의 지난 25년의 소중한 장면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

한 기회였다. 이 사진들은 지하 다목적 공간 전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전시될 예정이다. **함줄함울**

임직자에게 드리는 권면의 글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길

옛그제 같은데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창립 이듬해에 우리교회 첫 번째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 받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40대였는데, 어느덧 60 대, 70 대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창립 당시를 잠시 회고해 보자면, 그때 이미 한국교회는 교인수가 줄고,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차가와 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강남의 대형교회들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교회 안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큰 건물 짓고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어, 예산은 건축과 경상운영비로 다 쓰고 선교와 구제는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창립멤버 전원의 일치된 생각이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창립전야에 교회헌금

의 50% 이상을 무조건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교회 밖으로 내보내기로 서원하고 교회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새로이 취임하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새로이 교회 각 부서를 나누어 맡아 일하시게 됩니다. 자연히 여러분의 일이 금전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부연할 필요도 없이 교회헌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분의 소유물을 낭비하거나 경히 여겨 잘못 쓰면, 그 분의 꾸중을 듣게 되고 심하면 벌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 시간이 흐르면 사무적 관료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쓰고, 예산이 남았다고 어떻게든 써버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연말에 간부들에게 교회 돈으로 선물을 사서 하나씩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개혁해야할 폐습인 것입니다. 모든 행사에서 준비물, 그 중에서

도 음식물이나 상품의 경우는 조금 모자랄 가봐 걱정이 될 정도로 빠듯하게 준비해서, 정 모자라게 되면 간부들이 안 가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 돈을 지극히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참으로 많은 교우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헌금은 그런 분들이 바치는 눈물겨운 한푼 두푼으로 이뤄진 것일진대 어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 특히 장로로 취임하는 여러분에게 임기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길면 10년 어떤 분은 5년 밖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시무하는 다른 교회 장로들보다 두 배, 세 배 응축된 고강도의 봉사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주어진 유한한 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부디 피택 전 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피택 전에는 열심이다가, 취임하고 나서는 그 자세가 변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피택 전 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울 중자 중직자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하니 앞으로 교인 수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일 때 교인수를 줄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역선교를 한 셈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후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안수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안수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 해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권면하는 바입니다. **김도묵** 은퇴장로

☉ 해외선교소식

베트남 선교사 대회



베트남 선교사 대회에서 교육중인 박원호 담임목사님

6월 18일에서 6월 20일까지 진행된 베트남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중국과 인근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60여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며, 베트남 하노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교민 100여명이 함께 모여 2박 3일 동안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주님의교회 파송선교사님이시며 장신대명예총장님이신 서정운 목사님의 개회설교로 세미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원호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선교와 교육”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경청했으며, 마지막 강의까지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담임목사님은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수친구사역 등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공부와 제자화 사역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현지

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전략은 잘 준비했지만, 막상 어떤 신학과 내용으로 가르쳐야 할지를 고민하던 차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담임목사님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주님의교회 국제교육선교센터의 조광민 목사와 최봉도 목사(계명대 교수)는 제자화사역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과 현지 교육사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현장과 베트남의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현지 사역자들과의 미팅을 가졌으며, 자료의 공유와 번역작업 등을 진행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과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아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화와 제자화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조광민 목사

이제는 다니엘처럼

-주님의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으며

이희숙 권사

을레강변, 티그리스강 둔덕에서 하얏머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아득하기 만하다. 예루살렘성전은 물안개 속에 가물가물 번져 나간다. 무너진 성벽 틈새마다 들짐승이 깃들었겠지. 바빌론 소년포로에서 궁정시종과 왕의 고문으로 페르시아 총리로,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며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대하듯 신신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나 다리오 왕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야 했을 때도, 오롯이 하나님만 신뢰했다. 왕은 밤새도록 내 하나님께 제발 살려주라고 금식기도 했는지. 상처 하나 없이 우리가 온전하던 날, 바빌론 왕도 페르시아 왕도 조그맣게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침내 고레스 왕이 70년 멍에를 벗겼다. 학사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이 앞장서 예루살렘도성을, 하나님의 율례와 절기를 회복했다.

움켜쥐고 삼키려는 세상 풀무 불구덩이에서
허기로 달려드는 약육강식의 사자우리에서도
너희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온 세상 죄악을 품은 참회의 기도교회로
정결한 새순이 파릇파릇 돌아나기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그리하여
알곡 들고 열방으로 나가 세상 바꾸기를
너희에게 참소망을 두었다

너희가 주님의 교회라!

성전 문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집집에 이르러 복의 통로가 되리니
너희는 내가 택하여 세운 친구라, 동역자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청하여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주님
성령의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반세기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내 주여!
이제 성년의 때, 다니엘의 믿음을 허락하소서
성배로 마시던 벨사살 왕의 주연에 불쑥 나타나
불화살 경고를 쏘내려간 그 손도 허락하소서
‘지금 여기’ 너머 ‘장차 거기’까지 보는 눈을
다니엘의 형통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땅의 모든 끝까지 돌이켜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는 주님의 동역자, 예수 친구되기 원합니다

☺ 농어촌교회에서 온 편지

태풍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반짝이는 눈부신 날,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멀리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인 듯 하늘은 유난히 더 맑습니다.

전라남도 깊은 산속 소실 ‘태백산맥’에 나왔던 벽촌 보성군 읍어면 이동교회는 10명도 안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29년 전에 여자성도 3명이 마을에 교

회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중 하루하루 남의 일을 해주며 품삯을 받아서 돈을 모아 헌금을 해서 땅을 매입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헌금이었습니다. 깊은 산촌이다 보니 나이 많은 성도님들만 계셔서 재정이 자립이 안되어 교역자 사례비도 못 드리고 비가 오면 교회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

도 갈라지고 곰팡이와 습기가 많아지고 벽의 페인트도 벗겨지고 보기가 흉물스러워도 수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었습니다. “올 여름 장마에 큰비가 쏟아지면 어쩌나? 태풍이 지나가지붕을 날려 보내면 어쩌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주님의교회 농어촌선교회 봉사위원들이 6명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판넬로 지붕공사 해주시고 외벽 페인트도 하얗게 칠해주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 쪽 뻗고 잘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뜨겁

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적인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애쓰신 봉사위원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어렵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영혼구원을 위해 매진하며 힘써 주의 일 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신 주님의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기만 목사 / 전남 보성 이동교회

로렘나무

신앙과 현실의 괴리

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간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과 부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 예로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기로 하였다. 당시에만 해도 여전히 공무원의 불법적인 요구가 만연하던 시절이었다.

IMF 위기 직후 사무실이 어려워 400여 명의 직원을 둔 굴지의 대형 설계회사에 잠시 적을 둔 적이 있었다. 그 곳에서 2년 간 있으면서 체험한 것은 뇌물 공여, 심의위원 접대 등 건축사와 공무원 간에 온갖 불법,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기업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

그 회사를 떠난 몇 년 후, 10여 년 전이었다.

강남에 있는 15층 건물을 설계하던 중의 일이다. 까다로운 대지 조건으로 인하여 설계가 2년 째 진행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건축주

는 유수대학을 나오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매우 점잖은 기업인이었다.

어느 날, 건축주가 수차례에 걸쳐서 나에게 요구하였다. 심의 처리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 건축과에 회식비 조로 100만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건축주는 사석에서 심의 위원장을 만나 접대하는 등, 할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각종 수단과 방법을 구사해 대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를 원했다.

제안을 받은 나는 고민하였다. 이는 명백히 뇌물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신10:17) 말씀을 생각한 나는 건축주를 찾아가 결단의 통보를 하였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회장님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건축주 옆에는 그 회사 이사 두 분이 동석하고 있었고 체면이 손상된 건축주는 매우 격노하였다.

“내가 정 소장보고 불법을 하자고 했는가? 사업을 하다보면 세상이

치와 순리대로 인사 정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세상 이치대로 한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편법이었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설계사무실을 운영해 왔는가?”

“네, 어렵지만 불법과 편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시간에 걸쳐 세상적인 풍조에 근거한 충고와 설득과 회유를 하였다. 더 이상 다른 대답은 없었다.

“계속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설계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시는 IMF 위기 이후인지라 모든 설계사무소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나 또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다. 설계 계약을 포기할 경우, 5천만 원이라는 잔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이는 사무실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무모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가깝게 지내던 신앙 선배를 뵈게 되었을 때 위의 상황을 말씀드렸다.

그 분의 말이었다.

“그 건축주는 정 집사와의 계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분은 정 집사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그분 말씀대로였다. 계약은 파기되지 않았고, 다시는 건축주로부터 뇌물 공여의 요청이 없었다. 몇 개월 후, 허가를 득한 후 건물 준공까지 무사히 완료되었다.

지금도 교회 가는 중 삼성동에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나에게 늘 주어지는 숙제 하나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속 좌절과 신앙 안에서의 승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가이다.

정원영 안수집사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열왕기상편

				1		9		8	
		3							
		1							
							8		7
					5				
2									
			4						
		5							6
			6						
3						7			

지난호 정답 - 가로 1.아비새 2.웃사 3.아브넬 4.시므이 5.밧세바 6.므비보셋 7.나단 8.아마사 9.압살롬
- 세로 1.아히도벨 2.후새 3.아사헬 4.시바 5.이스보셋 6.마하나임 7.인구조사 8.요압

가로

-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했던 선지자는?
- 군대지휘관으로서 왕으로 추대되고 사마리아성을 건축한 이스라엘 왕은?
-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은 아들은?
-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유다 왕은?
-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했던 히람이 다스리던 곳은?
- 성전 주랑 앞의 두 뿔기둥 중 하나의 이름은?
-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 아합 왕에게 거짓예언을 했던 사람은?
- 모반하여 나답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된 사람은?
- 유다와 결별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벤엘과 단에 만든 우상은?

세로

-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로 솔로몬 이후 분열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예언 하였던 사람은?
- 아합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궁 맡은 자로 선지자 백 명을 구했던 사람은?
- 엘리아가 이세벨을 피해 호렘산으로 도망했을 때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사이에서 들었던 것은?
- 솔로몬이 세운 용사이나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는?
-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돕고 후에 군사령관이 되는 사람은?
-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도운 제사장은?
-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은?

부르심의 길에 서서

코람 데오(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단어는 항상 제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의식하려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놓고 하나님과 힘겹게 싸움하던 2004년, 저는 좋은 장로가 되겠다며 하나님께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저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금식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제 자신을 철저히 내려 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며 한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은 제 안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예배를 세워가고 있고 무너진 청소년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사명의 길을 달려 가고 있습니다. 제게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회자로 서고 싶습니다. 사람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달려가는 정직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강현규 전도사

★ 주님의교회 카툰



주방부 소식



1월부터 6월까지 봉사를 한 김인숙 권사 후임으로 2013년 하반기 주방 부장으로 박지원 권사가 수고하게 되었다. 많은 사역자들과 겨자씨 봉사자들의 수고로 주일마다 교우들에게 제공되는 국수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여 주일 오후 3시까지 설거지와 주방 정리로 마무리를 하는데 많은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다린다. *주방 휴무: 7.28(주일)~8.18(주일)

함줄함줄

새가족 양육 환영식



새가족 양육 환영식이 6월 30일 지하 식당에서 드려졌다. 박원호 목사는 주님의교회 한식구가 된 것을 환영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님의교회 기본 이념과 지금 진행되어지는 사역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해주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280여명의 새신자가 전반기에 등록을 하여 한가족이 되었다.

함줄함줄

비전트립 일정

헝가리: 7.19 ~ 28, 키르기즈스탄: 7.23 ~ 31

케냐: 7.26 ~ 8.4, 베트남: 7.31 ~ 8.5

교육목회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유아부: 7.20(토) ~ 21(주일) / 교회

유치부: 7.27(토) ~ 28(주일) / 교회

유년부: 7.26(금) ~ 28(주일) / 너리굴문화마을

초등부: 7.28(주일) ~ 30(화) / 용인시 한터캠프

소년부: 7.26(금) ~ 28(주일) / 이천 덕평수련원

중등부: 8.2(금) ~ 4(주일) / 양평 미리내 수양관

고등부: 8.4(주일) ~ 6(화) / 가평 그린 캠프 유스호스텔